

UAE 대통령, 장남 아부다비 왕세자로 임명

형제는 고위직으로... "걸프 지역 부자승계 추세" "알 나흐얀 일족 내에서만 권력 균형 유지" 분석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그의 장남을 아부다비의 왕세자로 임명했다고 UAE 국영 언론을 인용해 로이터 통신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아부다비 군주이기도 한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62)은 큰 아들인 셰이크 칼리드 빈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43)을 아부다비 왕세자에 책봉했다. 이날 별도의 법령에서 셰이크 칼리드를 아부다비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그의 다른 형제인 UAE의 국가 안보 보좌관 셰이크 타논 빈 자이드 알 나흐얀(54)과 하자 빈 자이드 알 나흐얀(57)은 각각 아부다비의 부총리직으로 임명됐다.

또한 셰이크 무함마드 대통령은 UAE 부통령으로 두바이 통치자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73)과 함께 동생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52)을 임명했다.

이달 초 셰이크 타논은 세계 최대 국무

펀드 중 하나인 아부다비 투자청 의장으로, 셰이크 만수르는 아부다비에서 두 번째로 큰 국부펀드인 '무바달라'의 회장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대통령이자 아부다비 통치자가 된 셰이크 무함마드 대통령이 자신의 장남을 왕세자로 선택한 것은 최근 걸프 아랍 군주국에서 형제 승계에서 부자승계로 바뀌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빈 압둘 아지즈(87) 국왕도 2015년 즉위한 뒤 형제 대신 아들 무함마드 빈 살만(37)을 왕세자로 삼았다.

유럽 외교위원회(ECFR)의 연구원인 신치아 비앙코는 "형제들을 새로운 역할에 임명함으로써 (아부다비의) 알 나흐얀 일족 내에서만 권력 공유 균형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아부다비는 1971년 셰이크 무함마드의 아버지가 UAE 연방을 설립한 이래로 대통령직을, 비즈니스 및 관광 허브인 두바이



러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왼쪽) UAE 대통령과 셰이크 칼리드 빈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43) 아부다비 왕세자. AP-연합뉴스

이는 부통령을 맡아왔다. 전문가들은 'MbZ'로 알려진 셰이크 무함마드 대통령이 정보경제 및 통치를 포함한 보안 분야의 권위 있는 자리에서 아들을 키워왔다고 말했다.

MbZ는 지난해 5월 그의 형인 셰이크 할리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수년 간 사실상의 통치자였다. 그

는 당시 미국이 중동 지역에 대한 개입을 줄이려는 게 아니냐는 조짐을 보여 UAE와 미국의 오랜 관계가 긴장되는 상황에서 집권했다.

그는 2020년 UAE가 바레인하고 함께 이스라엘과 유대 관계를 구축해 이 지역에 새로운 반(反)이란 축을 만드는 등 중동 재편을 이끌면서도 여전히 경제적 우선순위를

를 염두에 두고 이란과 갈등을 완화하는데 관여하기도 했다. UAE는 또한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를 증진시켰다.

아부다비의 인구는 1000만 명 미만으로 세계에서 1인당 국민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이 나라 노동력의 대부분은 수백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맡고 있다.

글로벌 클래스

마약왕 소유 하마 10마리 350만 달러 들여 해외로 콜롬비아, 너무 늘어나 골치

콜롬비아는 사망한 마약왕 과블로 에스코바르가 소유하던 하마를 350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 해외 보호구역으로 옮길 것이라고 영국 매체 가디언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콜롬비아 당국은 몇 달 안에 하마의 절반 가량을 포획해 이동시킬 계획이다. 10마리는 멕시코 북부의 오스톡 보호구역으로 60마리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인도 시설로 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역 주지사는 미끼로 하마를 유인해 가둔 뒤 특수 상자에 넣어 이동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오스톡 보호구역의 주인인 에르네스토 자스레타는 "전체 비용은 약 350만 달



라가 들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왕 에스코바르는 1980년대 후반 아프리카에서 몇몇 하마를 데려왔다. 그가 1993년 죽은 뒤 그의 사유지에서 탈출한 4마리의 하마는 막달레나 강 유역을 자신의 집으로 삼으며 현재 약 130마리로 불어났다.

이는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로 천적이 없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연구에서는 2034년까지 하마가 1400마리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콜롬비아는 2009년 이 동물을 도태시키려 했지만 사진이 유출되며 전국적인 반대에 부딪힌 뒤 중단됐다. 하마가 세계에서 생물학적으로 가장 다양한 곳 중 하나인 막달레나 강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칠레, 조류독감 인간 감염 첫 사례 발견

"사람 전염 위험 낮아 vs 과소평가 안돼" 전문가 찬반 팽팽

남미 칠레에서도 조류독감(AI) 인간 감염 첫 사례가 발견됐다.

로이터통신은 30일(현지시간) 칠레에서 처음으로 조류독감에 걸린 53세의 남성이 초기 심각한 독감 증상을 보였으나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칠레 정부는 이 환자와 접촉한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감염원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칠레는 작년 말부터 야생 동물에서 AI 인체감염증 유발 바이러스인 고병원성 H5N1형 발견 사례를 보고해왔다. 칠레 산업 농장에서 최근 AI 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가금류 수출이 중단되었다. 아르헨티나 산업 농장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세계 최대 가금류 수출국인 브라질은 아직 AI 감염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 보건 당국은 AI 바이러스가 조류나 해양 포유류에서 사람으로 전염된 예는 있지만 사람 간 전파 사례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에콰도르의 첫 인간 조류독감 사례는 올해 초 9살 어린 소녀에게서 발견됐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17개국 중 하나에 속하는 에콰도르는 세계 조류종 중 15%에 해당하는 1600여 종이 서식하는 곳이기도 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년간 21개국에서 AI 바이러스 H5N1형으로 인한 인간 감염 사례는 약 8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AI H5N1형은 치사율이 매우 높았으며 사망자 수만해도 450여 명에 달한다.

세계 보건 관계자들은 AI가 사람에게로

전염될 위험은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과학 책임자 고레고리오 토레오 교수는 지난 약 2년간의 통계를 보면 "조류가 아닌 종들이 AI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질병 역학에 변화가 있다는 신호이며 인간 감염 가능성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도 AI가 팬데믹으로 변질 수 있다는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일부 백신 제조업체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인간 감염 예방 주사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I 원인은 주로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에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병원성 AI 발생국을 방문한 사람이나 감염된 닭고기, 오리고기, 생계란 등에 의해 유입되기도 한다.

조류를 키우는 농장 간에는 분변, 먼지,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담긴 시험관. 로이터 캡처

사람의 의복, 차량 바퀴 등에 의해 감염되는 예도 있지만 공기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증상은 최대 10일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 38°C 이상의 발열, 오한, 근육통을 동반한

기침, 인후통 등 감기와 비슷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폐렴으로 악화하면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 CHEILJEDANG

남자의 건강기능식품

CJ 전립소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정상적인 면역기능, 항산화, 에너지 활력까지!

100% 미국산 소팔메토

- 기능성 원료인 소팔메토의 인체시험 결과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증가, 야뇨/소변속도 개선, 남성 삶의 질 개선 확인

-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기능성 인정

- 미국 FDA 안전성 기준 충족 프리미엄 원료 사용

Returnup

리턴업

전립소

소팔메토 파워

10년 연속 판매 1위

No. 1

소팔메토 열매추출물, 비타민 B군 4종, 셀레늄, 아연

건강기능식품 30g(500mg X 60캡슐)

※ 09-18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실적 기준

특별 이벤트

CJ 전립소 소팔메토 파워

맨케어파워 옥다코사놀 **3개월분 증정**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777-6655